

# 광주·전남 주택연금 가입 1년새 73% '쑥'

### 지난해 271건 1437억원 공급...1년전보다 48% 늘어

### 내집연금 3종 출시 이후 관심 급증...상담건수도 6배 ↑

광주·전남지역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요건이 완화됐고 고령화시대 노후 준비 수단으로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계부채를 줄이면서 노후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내집연금 상품 출시되면서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주택연금 가입 건 수는 12월 기준 271건으로 2015년 156건보다 115건(7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은 58.9%로 광주·전남 지역 증가율이 더 높았다.

연도별 광주·전남지역 가입 건 수는

2007년 시행 초 15건에서 2010년 51건, 2013년 146건, 2015년 156건, 2016년 27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주택연금 보증 공급액은 1437억원으로 2015년 972억원보다 465억원(47.8%) 증가했다.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광주가 73.3세, 전남이 73.1세로 나타났다. 월수령 금액은 광주가 55만5000원, 전남은 43만6000원이었다.

주택유형 중 아파트 비중이 광주는 84.2%, 전남은 64.4%로 집계됐다. 주택규모 중 85㎡ 이하가 광주는 78.2%, 전남은 73.6%이며, 주택가격은 광주가 1억4300만

원, 전남이 1억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관련 상담 건수 역시 월평균 200건에 달해 지난해 월평균 상담건수 32.4건보다 6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주택연금 가입 증가는 지난 4월 출시한 내집연금 3종 상품 때문으로 주택금융공사는 분석했다.

특히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특성상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 더 많은 연금을 주는 우대형을 중심으로 지역민의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증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일시 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70%로 늘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증자리론은 40~50대 중년이 보증자리론을 이용하다가 향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연 0.3%포인트의 전환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신 어르신에게 최대 15%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제공한다"며 "지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주택연금 가입자가 총 1만30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가입자(6486명)보다 58.9%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가입자는 3만9429명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bigkim@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65.99 (+0.38)
- ↓ 금리 (국고채 3년) 1.64% (-0.02)
- ↓ 코스닥 615.99 (-6.13)
- ↓ 환율 (USD) 1165.50원 (-3.70)



## 광주은행 2억6400만원 온누리 상품권 구매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이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2억640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위촉된 전통,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펼쳐 왔다.

광주은행 기관영팀 김종민 팀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지역민과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광주은행 모든 임직원들의 열정이 담겨 있으며, 전통, 재래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18일에도 지역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설맞이 행복꾸러미 나눔 행사'를 통해 행복꾸러미 상자 1000개를 제작하여 배달하는 등 지역은행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광주국세청 '현장 세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세무서 방문



김희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23일 일선세무서 신고현장을 방문해 신고창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 청장은 이날 광주세무서(서장 박광중) 청사 지하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찾아 내방한 납세자들의 신고서 작성을 도와 주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들이 홈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통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희철 청장은 올해 첫 부가가치세 신고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광주세무서 신고창구 방문을 시작으로 신고마감일인 25일까지 전남·북지역 세무서 신고현장 방문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불황형 무역흑자 여전

### 광주·전남 지난해 151억7200만 달러...전년비 12% 늘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151억7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3일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서정일)이 발표한 '2016년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7.0% 감소한 425억7800만 달러, 수입은 15.0% 감소한 274억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이 감소했지만 수입 감소폭이 더 큰 전형적인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4.0% 감소한 146억9800만 달러,

수입은 1.4% 증가한 56억28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90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은 타이어(0.3%)·철강제품(19.9%) 등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2.0%)·반도체(-1.5%)·가전제품(-15.9%)·기계류(-5.8%) 등이 감소했다. 수입은 기계류(19.4%)·화학제품(5.8%)·철강제(12.5%) 등이 증가했고 반도체(-6.5%)·고무(-10.3%) 등은 감소했다.

수출의 경우 동남아(0.9%)·중남미(25.4%)·일본(2.7%) 등이 증가했고 미국(-4.6%)·EU(-1.1%)·중국(-30.6%) 등이 감

소했다. 수입은 미국(135.8%)·중국(24.8%)·EU(32.1%)가 증가한 반면 동남아(18.8%)·일본(4.6%)·중동(45.6%)은 감소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8.6% 감소한 278억7900만 달러, 수입은 18.4% 감소한 217억78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61억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은 선박(38.4%)이 증가한 반면 화학제품(-10.5%)·석유제품(-20.7%)·철강제품(-10.0%)·기계류(-26.9%)가 감소했다. 수입은 원유(-22.5%)·석유제품(-16.7%)·석탄(-8.8%)·철광(-19.4%) 등 주요품목이 모두 감소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갤노트7' 발화 원인은 배터리

지난해 가을 단종된 갤럭시노트7의 잇단 발화 사고 원인은 배터리 결함이며, 본체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결함이나 운송 과정의 문제 등은 발화 원인이 아니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수습단체를 동원해 총·방전 시험을 거듭한 결과 삼성 SDI와 중국 ATL이 제조한 배터리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결함을 발견했다. 또 국외 검증기관 3곳도 이와 일치하는 결론을 확인했다.

자기 스마트폰 갤럭시S8을 준비 중인 삼성전자는 배터리 안전 검사를 강화하고, 제품 생산의 전문성과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연남뉴스

## 계란, 설 전 2200만개 판다

### 신선란 300t 직수입 추진

정부가 설 명절 기간 계란 공급 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신선 계란 직접 수입을 추진한다. 또 정부 비축 물량과 방역대에 묶인 계란 반출을 통해 설 전까지 2200만개를 시장에 풀기로 했다.

하지만 계란 공급 불안은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오는 24일 50t(75만개)을 시작으로 신선계란 총 300t(약 450만개)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aT를 통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신선 계란을 사실상 직접 구매해오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aT는 이미 최초 수입 통관을 마친 민간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물량을 들여올 계획이다.

8일간의 최초 통관을 받게 되면 두 번째부터는 3일 이내에 통관이 마무리되는 만큼 24일에 들어오는 물량은 설 직전 시중에 풀릴 수 있을 전망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나머지 250t의 경우 aT에서는 설 전에 수입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기는 하지만 민간업체와의 계약 문제 등이 있어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업체를 통한 신선 계란의 경우 22일 현재 394t(670만 개) 된 상태이며, 이미 유통 중인 물량을 포함해 검사가 진행 중인 물량도 설 전 유통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수입물량과 별개로 국내에 비축된 계란 852만 개(농협 358만 개, 생산자단체 494만 개)와 방역대 내 계란 약 700만 개(25일 1회만 반출 예정) 등도 26일 전까지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AI 이전의 하루 평균 3000만개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여기에 명절 직전 계란 수요가 평소보다 더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570여만개씩 추가 공급된다 하더라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추가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억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대한골프협동조합**

**회원가입 절차**

-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골프장 선불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협회 육성/골프투어 지원

KGC 대한골프협동조합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우로 18(서평동 890-12) ☎(062)371-1800 · 010-6270-1879

**특허방수**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2중압박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에지 패턴이달...그에서 만나는 재미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냉기 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 / 겨울철 실내온도: 3~5℃

전기로 30~40% /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탤런트 이영후

광주전남대리점 | 0621 511-0444 |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 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